

축령산 무대로 詩쓰며 사슴처럼 살아요

장성 '대지사슴목장' 김복수·최영희 부부



김복수씨가 부인 최영희씨와 함께 수련이 핀 연못에서 집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배치마을에 가면 사슴을 담은 부부를 만날 수 있다. '대지사슴목장'을 운영하는 김복수(65)·최영희(여·62)씨 부부가 그들이다.

삼나무와 편백나무 조림지로 유명한 축령산 진입로에 자리잡은 김씨의 사슴목장은 전원생활의 터전이자 시적 영감(靈感)을 주는 무대다.

낙향생활 14년째인 김씨 부부의 전원생활은 축령산의 나무만막이나 잘 뿌리내린 성공 사례로 꼽힌다. ▲수익성 있는 일거리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는 취미생활 ▲봉사를 통한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전원생활 성공의 3박자를 두루 갖췄기 때문이다.

김씨의 직업은 두개다. 사슴 목장 대표와 시인. 본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목부(牧夫)와 시인이다. 서울에서 20여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지난 94년 고향인 이곳에 내려오면서부터 엘크 사슴을 키우고 있다.

현재 사육두수는 30마리로 1년에 한번 생산하는 녹음이 주 수입원이다. 부수적으로 2천여평의 밭농사를 짓고 3년전부터는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큰 돈은 되지 않는다. 밭에서 생산한 고추·참깨·콩 등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민박을 이용한 사람들이 주문하면 조금씩 팔고 있다. 2층 민박집은 인근 상무대를 찾는 면회객들이 주로 이용하면서 주말이나 휴일에는 3개의 방이 모두 차고 있다.

김씨는 "4~5년전만 하더라도 연간 매출액 1억원에 순이익도 6천만원대에 달했지만 지난해는 매출이 7천만원으로 줄었다"며 "올해는 매출이 더 줄어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익이 줄었다고 전원생활에 대한 김씨의 만족도가 떨어진 것은 아니다. 보통 자신의 나이면 정년퇴직하고 일감없이 무료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지만 자연을 벗삼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행복할 따름이다. 더구나 좋아하는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쁘다.

김씨는 "스물 일곱에 고향을 떠날때 50살이 되면 고향에 내려와 자연속에서 시를 쓰겠다고 다짐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으니 아쉬울 게 없다"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전원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시를 써 지난해 월간 '시사문단'을 통해 등단하는 꿈을 이뤘다. 올해는 '목부의 해거름'이란 첫 시집을 냈다. 자청해 시집에 발문과 헌시를 쓴 송수권 시인(순천대 문창과 명예교수)은 김씨를 '엘크의 슬픈 눈을 지닌 시인'으로 칭찬하고 "그 시는 생명의 경이심을 간직하고 있다"고 호평했다.

김씨는 시를 통해 고향 알리기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 문인 150여명을 초청해 '축령산문학제전'을 열어 자연스럽게 축령산을 알리고 시낭송과 창작강의를 했다. 올해는 10월께 문학제전을 개최하고 인터넷을 통해 문학작품 공모도 할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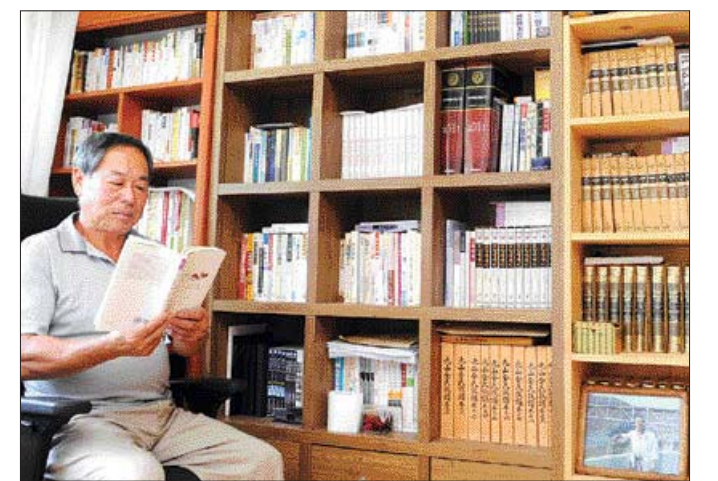
부인 최씨는 이런 남편의 든든한 후원자다. 마을이장을 5년이나 지내고 요즘에는 장성군 자원봉사자로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도 남편을 찾아 온 손님 챙기는 것을 잊지 않는다.

김씨는 "월남전 파병때 서울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던 아내와 편팔로 만나게 됐는데 결혼 후 지금까지 가장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최씨는 "고향이 갈아 자연스레 이곳에 정착하게 됐다"며 "집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고향을 알릴 수 있다는 게 행복한 일이 아니겠느냐"며 웃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94년 서울서 낙향 엘크사슴 사육 작년 시사문단 등단 후 시집 펴내 문인 150여명 초청 문학제 열기도



시인 김복수씨가 새재인 '문학실(文香室)'에서 올해 출간한 자신의 첫 시집을 읽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축령산 생태숲

편백 등서 내뿜는 피톤치드 피부질환에 좋아

축령산은 '조림왕' 춘원 임종국 선생이 21년간에 걸쳐 일군 국내 최고의 생태숲으로 유명하다.

임 선생은 1956년부터 76년까지 사재를 털어 축령산 자락 북일면 문암리, 서삼면 모안·대덕리 일대 596ha에 편백나무·삼나무·낙엽송 등을 심었다. 이 가운데 258ha를 2002년 정부가 사들여 국유림으로 관리하고 있다.

축령산 생태숲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백백한 조림지에서 내뿜는 피톤치드 때문이다. 강한 살균력을 지닌 피톤치드는 심폐기능을 좋게하고 아토피 등 피부질환이나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현재 축령산에는 2명의 숲 해설가와 1명의 등산 안내인이 상주하며 탐방객들

을 맞고 있다. 김복수씨가 사는 마을의 반대편인 북일면 문암리 금곡마을은 영화마을로 유명하다. 영화 '태백산맥'과 '내마음의 풍금'은 물론 드라마 '판남의 광장' 등이 이곳에서 촬영됐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법원경매 전문회사

- 늘 앞서가는 사람들 - (주)옥션코리아

위치: 광주지방법원 경매입찰장 앞 상담전화: (062) 222-8446

▶ 근린시설

| 소재지 | 대건 | 감평가 | 최저가 |
|-------------|-----------|----------|----------|
| 화정동/4-10토목림 | 845/2682 | 109억 | 49억 |
| 남구함동/간월사목 | 63/186 | 4억5000만 | 1억3000만 |
| 송정동/교회요양시설 | 123/298 | 12억3000만 | 5억5000만 |
| 무산동/면의정도립 | 192/513 | 16억8000만 | 7억4000만 |
| 화정동/학원지킴이 | 169/768 | 14억1000만 | 7억2000만 |
| 나산동/의료요양시설 | 975/1188 | 35억7000만 | 16억1000만 |
| 순천연월동/역스톱 | 236/299 | 1억4000만 | 8억8000만 |
| 순천연월동/아쿠아스레 | 288/120 | 8억7200만 | 4억3000만 |
| 목포산정동/비트PC방 | 58/176 | 5억8200만 | 3억2600만 |
| 목포산정동/사쿠나랜드 | 1178/2009 | 9700만 | 4300만 |

▶ 근린주택

| 소재지 | 용도 | 대건 | 감평가 | 최저가 |
|--------|------|--------|---------|---------|
| 유곡동/3층 | 근린주택 | 61/133 | 3억9000만 | 2억1640만 |
| 삼각동/2층 | 근린주택 | 57/45 | 1억5300만 | 1억710만 |
| 두림동/4층 | 근린주택 | 62/171 | 5억3000만 | 3억3000만 |
| 금호동 | 근린주택 | 65/151 | 4억2000만 | 3억2000만 |

▶ 주택

| 소재지 | 대건 | 감평가 | 최저가 |
|-----------|--------|---------|---------|
| 농성동/2층 | 42/43 | 1억4000만 | 7300만 |
| 주월동/2층 | 46/48 | 1억1300만 | 6300만 |
| 중흥동/2층 | 54/46 | 1억8000만 | 1억1800만 |
| 오지동/2층 | 52/57 | 1억2300만 | 8600만 |
| 우암동/2층 | 49/61 | 1억2500만 | 8000만 |
| 신촌동/2층 | 33/41 | 1억2400만 | 1억3000만 |
| 정성동/1층/단층 | 143/34 | 1억4000만 | 7300만 |
| 문암동/2층 | 44/53 | 1억1000만 | 5800만 |
| 동명동/단층 | 104/51 | 2억8400만 | 1억5000만 |
| 회수동/1층/단층 | 146/33 | 4600만 | 3200만 |

대인동삼일부동산

☎(02)228-1140, 5210 번외 602-2832 (광주동행 신촌점, 대인동 신촌사건내민)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평주시내권 및 시외순남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상 최악의 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수원지구 건물임대

호남최대의 신도시 1일 유동인구 30만명 모어아파트·우미아파트 앞 3면 도로점

1층 330㎡ 분할가능
편의점/아동통신/약국/안경점/호프전문점/점포점포 앞 보도블록 300㎡있음

2층 340㎡ 170㎡
소이과/치과/내과/전문클리닉센터

3층 340㎡ 분할가능
영어/수학/논술/과학학원

4층 340㎡
피부관리/요가원

5층 340㎡
커피숍/스포츠센터

6층 200㎡
레스토랑/호프전문점 옥상 90㎡ 사용 2008년 12월 입주예정

명성공인중개사
임대료의 018-811-3424, 011-825-0510

한국부동산 공인중개사

☎062-374-2860 · 010-9115-4467 위치: 화정동 세무소이대

수익성 최고 원룸, 전, 단 **수익성 최고 상가, 주택 상가건물**

·서구 중앙동/대지 210㎡ / 4F/원룸/보증금 8800만 원/월440만 원
·서구 금호동/대지 230㎡ / 3F/안집/보증금 3천/월 200만 원
·광산구 연산동/전/1354㎡ /매가 9000만 원
·광산구 연산동/전/3303㎡ /2억5천
·광산구 고흥동/전/925㎡ / 7천만 원
·광산구 우산동/탑/3000㎡ /5억5천
·서구 세하동/도로점전/ 2642㎡/5억6천만 원
·서구 쌍촌동/대지/600㎡ / 4억

·서구 화정동/대지 350㎡/건 평1320㎡/17억/보증금 4억 /월900만 원
·서구 벽진동/대지 221㎡/단 층건평66㎡/매가1억
·서구 쌍촌동/대지 160㎡/구 한옥1동/매가7천
·서구 쌍촌동/대지 350㎡/2F /건평165㎡/매가2억6천5백 만 원
·서구 쌍촌동/대지 859㎡/매가4억6천800만 원
·서구 매월동/대지 1123㎡ /간월 198㎡/6억5천
·서구 세하동/대지 337㎡/구 한옥1동/매가1억2천
·서구 세하동/대지 480㎡/구 건물1동/매가1억7천만 원

수익성 좋은 원룸, 상가건물 수시접수합니다.
※ 불안한 물가상승, 투자할 곳은 부동산뿐입니다 ※ 투자자의 입장에서 최단기간에 최고수익을 얻을수 있는 부동산을 소개합니다. 지만장 전체 게재한 점 양해 바랍니다.

수원 부동산 컨설팅

☎ H·P : 010-5714-1114 (하남공단 3번로 / 수원지구 앞)

▶ 산월동 자연복지
-전지공고-보훈병원 사이 약 6,000㎡
-주유소, 화물차고지, 물류창고/분할가능

▶ 일곡지구 고급주택가 부지
-롯데A, 입산초교 서쪽 약 380㎡
-고급주택 밀집지역 / 별도 토공사 불요

▶ 단독주택 매매
-운안동 중앙이고-문화예술회관사이.
대지 약200㎡ 2층주택 / 1층 주안집 2층별도 출입 / 2가구 임대중
정원수, 연못 관리상태최상 / 최신인테리어 개보수 완료

▶ 담양 관리지역 입야
-창평 23,000㎡ / 폭9m진일로확보
-침단, 일곡에서 10분 거리
-공장, 폐차장, 물류창고, 복지시설가능

▶ 원룸매도 (수익률 약15%)
-도신역세권 / 원룸17실, 쓰리룸1실
-매매가4억3천만 원 / 실투자2억3천만 원
-보증금2억, 월세280만 원

▶ 수원지구
-초대형학원 최고인자 확보
-아파트 분양권 로얄층 다수 확보
(현전, 코오폰, 우미, LG지아...)

▶ 공장 매매/임대
-하남, 소촌, 평동공단 매매 임대물건
수시 접수 & 처리중

▶ 기타
-수익성 좋은 10억 전후 건물구원/
매수자 대기중